

## ‘차세대 반도체 요람’ 경북도, 소부장 국산화 선봉선다

산업부 공모 4건 국비 232억 확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성능·신뢰성 실증, 기업 진출 지원  
기술 자립화 통한 공급 강화 집중  
국가첨단전략산업 R&D사업 선정  
인프라 확대, 첨단산업 성장 가속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  
한 4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3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먼저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이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는  
다.  
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  
합한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특성,  
성능·신뢰성 등 시험평가 체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기업의 시  
장진출을 돕는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부

품 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  
어 기술 자립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은 대부분 증  
소·중견기업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  
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제외하고 재정  
여건상 소재나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  
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한 시험  
평가 센터 구축으로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 구미 반  
도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평가센터에서는 기업 수요에 맞  
춰 차세대 반도체용 기반 소재인 실리  
콘(Si)·실리콘카바이드(SiC)·갈륨나  
이트라이드(GaN) 웨이퍼와 히터, 쿼  
츠, 내플라즈마 소재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시험·평가/인  
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조격차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  
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R&D)’  
사업에 3개 과제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82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영남대에 열린 지  
난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에서 구미 국가산단을 반도체 소  
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  
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구미 국가산단이 더욱 경쟁력  
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6월 공모에 선정된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사업과 함께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을 로봇, 이차전지, 방위산  
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시장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한 만큼 소  
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술개발  
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자립  
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  
을 시작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  
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및 실  
증 인프라를 확대 추진해 경북의 첨단  
산업의 성장을 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오늘은 내가 한글왕**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제578돌 한글날 기념 한국어 퀴즈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받아쓰기 답을 적은 스케치북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 도내 유망 7개 사, 해외 뷰티 시장 ‘물꼬’

러·CIS 최대 행사 공동관 개설  
중진공 현지 사업소와 지원 박차  
유통사 모색, 브랜드 인지도 UP

경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  
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  
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  
‘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  
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  
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하  
는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

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참  
가하는 대신 러시아 시장 유망 샘플 10여  
종을 경북기업 공동관에 전시하고 협의  
를 통해 제품 홍보는 경북도 러시아 연  
해주 통상 투자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경북도 연해주 통상 투자 사무소는  
이번 전시회 기간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모스크바 사무소와 함께 참  
가기업에 대해 수출 상담 통역을 지원하  
고 제재에 따른 물류와 결제 애로사항  
을 고려해 추후 주주로 이어지도록 돕  
는다.  
경북 공동관에 참가한 경산시의 디  
유코스메틱은 러시아에서 많이 알려진  
한국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립틴  
트와 애플을 선보여 러시아 소비자들  
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브랜드 인  
지도를 높인다.  
500ml 기준 6900루블(약 10만원)에

모스크바 고급 뷰티샬롱에서 유통되는  
‘Moran 샴푸’의 제조사인 경산시 소  
재 ㈜블레스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급 이미지의 대중화를 위해 세컨드  
브랜드 ‘O 샴푸’를 내놓고 이를 유통  
할 현지 파트너를 찾는다.  
세계 최대 면적의 러시아 어느 도시  
에서도 볼 수 있는 ‘MJ 마스크팩’의 제  
조사인 구미시, ㈜미진화장품은 지역  
별 7개 파트너에게 신상품을 알리고 기  
존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해 자체 부스  
를 운영한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기업 철수  
와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우리 화장품  
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 해외사무소 등  
을 활용해 경북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  
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라고 밝  
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YouTube** 경상투데이

## 역대 최대 ‘DIFA’... 테슬라·캐딜락 신모델 한자리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  
190여개 국내의 핵심기업 참가  
현대·SKT 등 UAM특별관 운영  
전기·이륜차 시승행사 등 다채

미래모빌리티 B2B 전문플랫폼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이하 DIFA)가 이달 23일부터 26일까  
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8회차를 맞이하는 ‘DIFA’는  
지방에서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명실상  
부 대한민국 최대 모빌리티 통합 전시  
회로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산업통  
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는 등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완성차부터 모터, 배터  
리, 충전기 등 핵심 부품·인프라,  
UAM까지 190여개 국내의 기업 및 기  
관이 엑스코 동관 454평(1만5024㎡)  
을 빼곡히 채운다.  
우선 글로벌 TOP3 완성차 기업인 현  
대자동차는 자사의 미래모빌리티 비전

을 상징하는 ‘SPACE Mobility’를 가  
져온다. 현대모비스는 CES2024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 ‘모비온(MOBION)’을  
전시한다.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시스템을 통해 크랩 주행, 대각  
선 주행, 제자리 회전 등을 시연하며  
움직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기술  
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와 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GS건설 등이 공동으로 조  
성하는 ‘UAM특별관’은 미래 이동수  
단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예약  
부터 체크인, 보안절차, 탑승까지 체  
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아울러 테슬  
라, 캐딜락, JEEP 등 해외 OEM사  
(社)들도 최신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  
다. 특히 국내에 아직 출시하지 않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Cybertruck)도  
그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다.  
배터리, 부품 등 모빌리티 핵심 밸류  
체인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삼성SDI,  
금양, 엘엔에프 등 K-배터리를 대표하  
는 기업들과 에스엘, PHC, 경창산업  
등 지역 자동차업체를 이끄는 선도기  
업들도 대거 참가한다.

또한 서관 3층 콘퍼런스장에서 23일-  
25일 3일간 진행될 국제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  
다. 첫날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디자  
인 총괄 및 지난해 월드카 어워드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인’으로 선정된  
현대자동차 이상엽 부사장과 지난해  
10조원 매출을 돌파하며 LG전자의 미  
래먹거리로 떠오른 전장사업부의 이상  
웅 연구소장(전무)이 연단에 오른다.  
둘째 날인 글로벌 대표 빅테크 기업  
인 ‘엔비디아’와 ‘메타’가 특별세션을  
구성한다.  
수출상담회는 전년대비 대폭 확대  
됐으며 50여명의 국내 바이어 및 투자  
자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와 삼성SDI,  
GM,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등 20개  
사가 참여하는 취입박람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DGIST의 기술상담회도 올  
해 처음으로 열린다.  
한편 행사가 진행되는 나흘간 동관  
야외에서는 시민들이 최신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시승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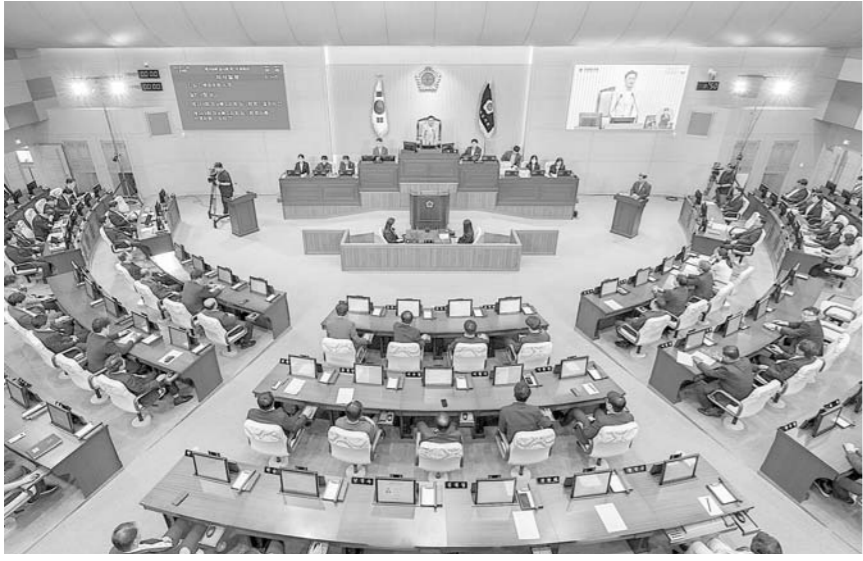
**Yeong Cheon Wine**

최고의 맛이 쏟아지다  
**영천별빛한우**

**와인과 한우의 환상적인 콜라보, "영천와인페스타 with 영천별빛한우 구이축제"**

**2024. 10. 12.(토) ~ 13.(일), 영천강변공원**

# 경북도의회, 350회 임시회... 저출생 극복 '도민 체감 대응' 실현



**행감 계획 수립 등... 22일까지 최덕규·김대일·김재준 도정질문 출자출연동의안 등 총 60건 예정 박성만 의장, 울진군민 위로 전해 연말까지 차질 없는 진행 당부**

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열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

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김대일·김재준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최덕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대에 대한 대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일 의원은 '도청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한반도 허리 경제권 제안'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재준 의원은 '국

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백암온천과 후포 마리아항 활성화 대책 마련', '학교 내 디페이크 성범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2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각종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6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집행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당부했다.

그리고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수취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280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알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가자"고 제안하며 특히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련과 감동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축제가 한 건의 사고 없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촉구했다.

박의영 기자p04140@naver.com

## "안동댐 수질은 1급수... 맑은 물 하이웨이 차질 없을 것"

우재준 與 의원, 취수원 조사 결과 안동1~4 지점 1mg/L 이하로 식수 문제 無... 중금속 검출 우려 종식



안동1~4 측정 지점에서는 1mg/L 이하의 가장 좋은 수질 결과인 1급수가 나왔다"고 했다.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동강 하구연2와 서낙동강1~4 측정 지점에서는 3mg/L 이상의 수질 결과가 나타난 반면

BOD는 1mg/L 이하의 경우 '매우 좋음' 등급으로 분류돼 간단한 정수 과정만 거쳐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3mg/L 이상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

되며 일반적인 정수과정만 거칠 경우 공업용수로 사용된다.

일부 환경단체가 안동댐 취수지 퇴적물에서 중금속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우 의원은 "지난 10년간 안동댐과 취수예정인 안동1의 수질검사에서 중금속이 측정된 것은 단 6차례에 불과하다"며 "측정된 6차례의 결과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람건강 보호 기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중금속 용출 특성 정밀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후속적인 정밀 조사가 지속

될 것"이라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인 만큼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경북 안동댐 바로 아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km의 도수로를 건설해 하루 63만 t의 식수를 공급받는 내용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1



## 군의회의회, 효율적 의회 운영 위해 '집중'

의원 간담회, 집행부 추진안 점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군의회의회는 지난 7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

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대구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부 검토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군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만 5천억대... 미온한 대응 여전

이만희, 농축산해양수산위 감사 전 인적·재산피해 동반 사전 예방 필요 조직관리·제도개선 시급하다 지적



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ASF와 조류 인플루엔자(AD), 구제역, 렙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액이 4808만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방,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 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축산 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총 54개 기관 및 90개소에 3만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에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 왔는데 동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이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일차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당국과 긴밀한 정책 및 입법공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농촌이 교통사고 더 취약... 인프라 점검 必

임미애, 지역 맞춤 시설 설치 당부 도시지역에 비해 사망자 수 2배 ↑

사람과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이 도시보다 교통사고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활용해 경북 22개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 이하 농촌지역의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422건으로 10만명 이상 도시지역(405.2건)보다 16.8건 많다.

특히 사망자 수는 농촌지역이 10만명당 19.4명으로 도시지역(10.2명)의 2

배에 육박한다. 부상자 수 역시 농촌지역이 613.7명으로 도시지역(587.3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를 보면 도시지역은 10만명당 사망자 169명 중 83명으로 49.1%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91명 가운데 48명으로 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도시 중심으로 교통안전 인프라가 공급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며 "도시와 농촌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만큼 교통안전 관련 시설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경상투데이 캠페인

# 저출산 극복

## 경북형 새날봄

<p><b>조기퇴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li> <li>근로자 임금 보전</li> <li>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li> </ul>	<p><b>학교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li> <li>거점형 돌봄센터 구축</li> <li>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li> <li>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p><b>심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 서비스</li> <li>24시 어린이집</li> <li>아픈 아이 긴급 돌봄</li> <li>24시 응급치치 편의점</li> </ul>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 경북문화관광공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힘'

김남일 사장·교육 수료생 8명  
간담회서 제작 영상 시청·소통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역 관광자원을 뉴미디어를 통해 알리기 위해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9일 공사에 따르면 김남일 사장과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수료생 8명이 지난 7일 'CEO와 함께하는 경북관광 미디어 로컬크리에이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의 풍부한 자원을 디지털 로컬콘텐츠로 제작해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1인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개인의 경험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했다.

한 크리에이터는 "경북도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1인 창업가로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사장은 "경북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미디어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지역 관광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경북의 관광 자원을 알리고 1인 창업가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경북의 숨겨진 맛집, 관광지 등을 직접 탐방한 영상, 사진을 활용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경북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도민 PICK '경북 쌀' ... 맛·생육 두 마리 토끼

농기원, 수요자 참여형 평가회  
예비품종 6개 중 3개 품종 선발  
생육평가·향후 발전 방향 토론  
내달 중 수확 후 밥맛 평가 실시  
주민 공모 통해 증명 반영 예정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8일 국립식량과학원, 구미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신품종 육성을 위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 현장평가회'를 벼 작목반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개최했다.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 프로그램(SPP)은 육종가(우량품종 육성), 농업인(예비품종 선발), 지역농협(품종 유통), 소비자(밥맛 평가 및 품종명명)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 중심 연구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재배하던 '일품벼' 품종을 고품질의 우량 신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해 고품질 밥쌀용 품종 '다솜쌀', 대립 향찰벼 '구름찰' 등을 자



체 육성에 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등과 공동으로 6개 예비품종에 대한 구미지역 실증시험 재배와 현장평가회를 실시해 3개 예비품종을 선발했다.

이날 벼 육종가와 향후 유통에 참여할 지역농협 관계자, 쌀전업농 임원 및 회원농가, 소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만생종이며 밥맛이 우수한 품종 등 1차 선발된 3개 예비품종에 대한 수확기 생육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0-11월에는 예비품종별로 벼를 수확해 수량과 품

질특성을 조사하고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밥맛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품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공모를 통해 품종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된 품종은 벼 품종 개발 전 과정에서 지역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의견과 지역별 스토리텔링이 반영된 품종명을 통해 오랜 기간 재배하던 '일품벼' 등 기존 품종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량 신품종으로 빠르게 교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숙 원장은 "수요자 참여를 통해 경북지역 기후에 적합한 우수한 벼 품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급격한 기후 변화에도 안전하게 농사짓고 경북 쌀 상품의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고품질 밥쌀용 품종 '다솜쌀', 대립 향찰벼 '구름찰', 국립식량과학원 육성 최고 품질 '미소진품' 등 2024년산 벼 신품종 우량종자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 청년 창업가들, 지역에 재능기부 '훈훈'

청년봉사단과 브리 마을회관 방문

경북도는 지난 8일 청년 창업가 및 청년봉사단과 함께 예천군 호명읍 본리에 소재한 마을회관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청년정주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청년 기업들이 주축이돼 쌀쌀해지는 가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신의 기업 제품도 홍보하는 기회를 위해 마련됐다.

청년창업가 20명, 경북청년봉사단 10명 등 30여명은 사진 촬영, 마사지, 염색과 같은 재능기부와 식사 제공, 마을환경정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만 도의회 의장, 이형식 도의원, 도 및 예천군 관계자 등도 참석해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청년은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 사진을 촬영하고 미용 사업을 하는 청년은 염색과 메이크업

로 외모를 가꿔주고 도시락 사업을 하는 청년은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나머지 청년 대표들과 봉사단은 마을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청년기업 대표들은 우수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북도는 청년정주지원센터(의성)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소통의 허브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에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경북에 정착한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들의 추가 유입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국학진흥원·신보재단, 공공기관 경영 평가 최고등급 '영예'

도, 20개 공공기관 실적 심의 진행  
진흥원장, 최고 기관장 선정 쾌거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출연기관 17개, 보조기관 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최고등급(S등급) 기관은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차지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 연구자료를 가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 할

머니' 사업과 국역의 디지털화를 위한 AI 콘텐츠 개발 등의 우수한 성과로 2년 연속 S등급을 차지했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금리 상품공급, 상담예약 시스템 도입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비 1단계 올라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처음으로 도입된 기관장 경영 평가 결과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기관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영관리(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와 경영성과(사업성과, 고객만족성) 2개 분야 내 17개의 세부 지표로 평

가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 점수는 비슷하나 하위그룹이 중위그룹으로 약진하는 등 기관별 경영혁신 노력에 따라 순위 변동이 강하게 나타났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도정 연계성 및 도 발전 기여도와 윤리·인권 경영 등 사회적 책임 부문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직관리와 예산집행 평가는 지난해 대비 다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경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북도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경영 평가 결과 성과 보상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

관장 평가 C등급 이하 기관장은 성과급을 미지급하기로 했고 경영 평가 결과 최고 등급과 C등급 이하 기관장은 오는 2025년 기본 연봉 책정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기관평가 때 최고등급 기관은 상위직급 조정 등 승진 인센티브를 제공, C등급 이하 기관은 경영 컨설팅을 통해 경영혁신을 도울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영 평가가 실질적으로 기관의 경영 선진화에 도움을 줘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교육청, 학교지원센터 역할 재구조화

경북교육청은 지난 8일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당 장학사 26명을 대상으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역할 재구조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내와 교원 중심 업무 경감 STP 전략 수립, 학교지원센터의 교원 업무 경감 중심 사업 재구조화 방법 모색, 22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교원 업무 경감 사업 현황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STP 전략은 교원 업무 경감 중심 학교지원센터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세분화(Segmentation)와 타겟 설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 분석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중

심점으로서의 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22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교원 업무 경감 사업 발표를 통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더 많은 교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개강

## 2024.9.27~11.8(매주 금요일, 18:30) 분황사 경내

추천분황사 주관분황사,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운영위원회

문의 054 742 9922/ 대상 일반시민(무료강좌)

09.27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 - 남동신(서울대학교)

10.04 분황사 모전석탑과 신라의 불탑 -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장)

10.11 신라의 사리신앙과 사리공예 - 김연수(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10.18 신라명필 김생의 필적을 찾아서 - 박홍국(전 위덕대학교)

10.25 신라불교와 보살 - 이주형(서울대학교)

11.01 분황사와 신라의 불상 -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11.08 분황사에서 듣는 빈센트 반고흐의 삶과 예술 - 이태호(전 명지대학교)

# 성주·고령 소나무재선충병 뿌리부터 잡는다

### 산림청, 수종전환 방제 추진 사업설명회 열어 필요성 설명 산림소유자 지원·참여 독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인 고령군과 성주군에 대한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한다. 지난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고령군과 성주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령군과 성주군 일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올해부터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방제구역은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고령군, 성주군, 대구 달성군, 경남 밀양시 등 7개 시·군이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독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어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북도, 고령군, 성주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산주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방제정책과 수종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할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립비용과 파쇄, 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 등의 지원사항을 안내해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재선충병 발생지의 수종전환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천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수종 전환 방제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 청도, 반려동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조성

###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소식 개최 대지 1396㎡ 규모, 60마리 수용

청도군은 지난 8일 반려동물과 공감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인 ‘청도군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하수 군수, 전중을 군의회 의장,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과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도군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청도읍 원정리 산5-11에 위치해 도비 9000만원과 군비 11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억원으로 대지면적 1396㎡, 건축면적 215.25㎡ 규모로 지어졌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60마리의 개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보호실, 진료실, 상담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센터 운영은 수의사, 관리자, 사육사 등 총 6명의 인력이 맡아 유기 및 유실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치료 및 훈련을 거쳐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청도군은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수 군수는 “오늘 청도군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유기동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과 공감하는 행복한 희망 청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경주경찰서, 집념의 수사로 시민 안전 사수 ‘값진 결실로’

### 수사2팀, 경북청 베스트 수사팀 형사4팀, 마약 집중단속 우수팀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지난 8일 경주경찰서를 방문해 2024 제2차 경북청 베스트 수사팀에 선정된 경주경찰서 수사2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또 상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우수팀으로 선정된 형사4팀에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사2팀은 외국인 40여명으로부터 유학 알선명목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를 도주 11개월 만에 동거녀 주거지에서 추적 검거해 구속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처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형사4팀은 지난 2월~7월 마약 투약 및 판매 첩보 입수 후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경주·대구·부산지역에서 필로



폰을 투약한 상습투약자, 알선책, 판매책 등 8명 검거, 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봉수 장은 “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질적 민생침해범죄, 마약·도박과 같이 일상 곳곳에 스며드는 중독성 범죄

적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811@naver.com**

## 영주소방, 지역사회 안전 확보 ‘일조’

### 숙박업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완강기 등 피난기구 사용법 중점

영주소방서는 지난 8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숙박시설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8월 22일에 발생한 부천 호텔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의 화재 위험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통해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영주소방서는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지역 숙박시설 103개소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보내 관련사

항을 안내했고 직접 통화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참석을 당부했다. 교육은 화재발생 사례를 통해 원인과 피해를 분석하고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설치기준 안내,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원리와 대상물별 차이 교육, 마지막으로 관계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자체점검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유문선 서장은 “숙박시설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의성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21일까지 직접 방문·무료 지원

의성군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소·염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일제접종 대상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소 506호, 8183두) 및 300두 미만 염소 농가(염소 113호, 3204두)로 공수의사 10명이 3주간(10월 31일까지) 담당 농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질병예찰과 백신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는 렘피스킨 백신과 동시 접종을 한다. 접종은 구제역 2가 백신으로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구입비용을 50% 지원하는데 의성축협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매 후 소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을 한다. 접종 완료 4주 후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을 위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을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수 군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신속히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매일 소독 및 농가 예찰 등 방역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예천 드림스타트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편의점 대상 예방 홍보물 배부

예천군 드림스타트팀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지역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교통카드 충전, 간식 구매 등으로 인해 아동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예천군은 이번 캠페인에서 예천경찰서 및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인접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편의점 관계자들이 아동 방문 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대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편의점을 방문하는 아동이 몸에 상처가 있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편의점 관계자가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절차와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4-중-326호

#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 개막식 4만명 '황금정원 나들이' 대장정 순항

황남동 고분군 일원서 13일까지  
자연+정원문화 축제 전국 주목  
공연·체험·시민참여정원 인기



'2024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가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지난 4일 열린 개막식 행사에 4만명이 찾아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황금정원 나들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Welcome to 경주 APEC'이라는 주제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주제정원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소개하는 도시농업정원이 마련됐다.

특히 '시민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경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꾸민 아기자기한 '시민참여정원'도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민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버스킹, APEC 기념 풍선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직접 식물을 심어 가져갈 수 있는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주시는 야간 경관 조망도 준비해 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황금정원 나들이'는 단순한 꽃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원예를 주

제로 한 경북도 최초의 도시 원예 및 화훼와 지역 농산물이 어우러진 지역 대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첫 회였던 지난 2019년 20만명을 시작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5만명과 18만명 그리고 지난해에도 18만명이 행사장을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경주시는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가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정원 문화를 조화롭게 접목한 특별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경주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깊어지는 가을 아름다운 詩心 선사

시 읽는 문화 경주, 11일 시 낭송 콘서트... 문화 화합의 장 활짝

시 읽는 문화 경주가 11일 오후 2시 경주시 양남면 월성스포츠펠터 2층 공연장에서 지속가능한 우리의 에너지 한수원과 함께 '경주의 가을 시향속으로' 시 낭송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와 (재)고암장학재단, (사)시 읽는 문화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시 낭송 콘서트에서는 서일옥 시조시인이 '시낭송과 인문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이원경·이영주·김수희·배미자·장정옥·최경선·황정희 낭송가가 허대성 시인의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 김백기 시인의 '아사달과 아사녀', 강숙례 시인의 '영지와 무영탑', 강달수 시인의 '무영탑', 김대환 시인의 '무영탑 유정', 신동엽 시인의 '너를 새기려다' 등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 담긴 시를 낭송한다.

또 정민정·이인숙·박순천·김양경 낭송가는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제방매가', '안민가' 등 우리 조상들이 읊었던 시조를 낭송할 계획이다. 손예원·김민열·윤영혜·전인선·김옥경 낭송가는 각각 도종환 시인의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와 '흔들리며 피는 꽃', 박병순 시인의 '가을이 짙어지면', 정호승 시인의 '연어'를 낭송한다.

더불어 정국·신은숙·김연자·성금찬·김서이·김잠주 낭송가는 유치환 시인의 '생명의 서', '그리움', '행복', '무제', '수선화' 등



을 낭송한다. 김은호·박순금·이영혜 낭송가는 이기철 시인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를 낭송하고 심문화 시 읽는 문화 경주 지회 대표는 서일옥 시인의 '가을강', '낙동강'을 낭송해 감동을 전한다. 또한 초대 가수 김기범(새로운 대표)의 공연까지 어우러져 참석자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심문화 대표는 "이번 시 낭송 콘서트를 통해 신라 천년의 이야기를 담고, 삶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특강과 함께 초대 손님이 어우러져 지역민과 더불어 오늘을 선물할 수 있어서 무한한 기쁨이자 영광"이라 말하며 "가을이 영그는 한나절, 소박하고 정성스러운 무대에서 아름다운 시심(詩心)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031@naver.com

## 경주시, GK-SBR로 물 산업 선도도시 '우뚛'

(하수처리 기술)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GK-SBR 하수처리 기술'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했다. 이 기술은 기존 하수 고도처리 공법에 비해 질소와 인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안정적 인 처리수 배출 기술로 환경부 녹색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9월 경주시에 따르면 'GK-SBR 기

술'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혁신적 공법으로 지난 2022년 11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의 환경친화 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성과는 민선8기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수처리 기술 개발의 결실로 금호건설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기술 적용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기술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 동아인

구 번하 락엣마을에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하수처리 시스템으로 도입됐으며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경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

경주시의 기술이 환경부 우수 환경기술 해외 실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현지 맞춤형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다.

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질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녹색기술 인증

베트남·페루 등 해외시장 기술 적용

연구팀을 운영하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물정화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기술 성과는 경주시가 물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시의 우수한 물정화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 市, 건천음 '천포교' 교체 사업 본격화

이달 착공 내년 10월 완공 목표

경주시는 내진 성능 부족과 통수 단면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집중호우 시 주변 범람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천음의 대표적 노후 교량인 '천포교'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경주시에 따르면 건천음 천포리 1165-28번지 일원에 위치한 천포교를 길이 46m, 폭 10m 규모로 왕복 2차선 도로와 보행로를 갖춘 교량으로 조성한다.

총사업비 31억5000만원은 전액 시비

로 총당되며 이달 중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량 교체와 더불어 총 187m 구간에 걸친 하천 정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 설계를 시작해 올해 6월까지 교량 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주시는 이번 교체 사업이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 기념행사 개최

정신건강 중요성·사회적 관심 제고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10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소중한 사람을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부 '마음건강 강연'과 2부 '마음위로 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소중한 사람

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의 저자 최의종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를 주제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공연팀 솔라즈의 팝페라 앙상블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는 사전 신청자 우선 입장 후 현장에서 인원이 초과되지 않을 시 별도 예약 없이 입장도 가능하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gjmind.or.kr) 또는 전화(054-777-1577)로 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실시

한 달간 지역 4곳 1250명 대상

경주시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한 달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내 고등학교 4곳이 선착순으로 신청해 학생 1250여명이 마약류 예방 교육에 참여한다.

최근 타지역의 한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 점차

접근하기 쉬워짐에 따라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청소년 및 젊은 층에서 마약류 접근이 점차 쉬워지는 추세로 경주시는 지난 7일 안강전자고등학교에서 첫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마약의 종류와 중독 증상,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마약류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배웠다.

시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 5대 주정차금지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지돼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간주(화재 시 소방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과태료 8~9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시 각종 사고 위험). 과태료 4~5만원
-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멈춰 있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횡단보도가 가로막혀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차도 이용 등 위험 초래). 과태료 4~5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멈춰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원활한 차량 통행, 운전자 시야 방해). 과태료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이 불법주정차 대상!(주의)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집중 단속 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각각 1만원씩 추가 ※소화전(5m 이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과태료 2~3배↑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대구로 서포터즈, 시민 눈높이 맞춤 알찬 시정 홍보 '엄지척'

5개월간 성과 공유·해단식 개최 SNS·숏폼 등 혜택 알기 쉽게 전달 플랫폼 신규 이용자 유입 큰 기여 시, 서포터즈 노고 감사 뜻 전해 플랫폼의 지속 발전·홍보 '힘써'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의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7일 해단식을 가졌다.

'대구로 서포터즈'는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하고 홍보 역량이 우수한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대구로 시민 홍보단'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



와 혜택을 체험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함으로써 '대구로'를 시민들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올해 최초로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

1기는 7대 1(12명 모집, 85명 지원)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최종 12명으로 구성됐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 위주의 SNS 홍보 분야 9명, 유튜브·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3

명으로 나눠 홍보 활동을 펼쳤다. 5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63건(SNS 게시물 30건, 숏폼 33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4만2000여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각종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올해 도입한 대리운전 서비스, 병·의원·약국 정보 안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서비스를 잘 빠르게 홍보해 신규 이용자 유입에 기여했다. 그리고 대구로페이 연계 최대 12%할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와 추가 할인 홍보, 착한매장 이용 시 2000원 자동 할인 등 이용자들이 놓칠 수 있는 혜택을 상세하게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맥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현장에 직접 참여해 '치맥페스티벌·대구로 연계 프로모션'인 현장주문 기능과 대구로택시존 및 할인쿠폰 발급 및 이용법 등을 꼼꼼히 안내하는 등 축제 기간동안 '대구로' 앱 설치 125%, 회원가입 243%, 주문 38% 이상 증가시키

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대구로 서포터즈'의 활약과 함께 '대구로'는 2024년 8월 기준 회원수 55만9000명, 누적 주문액 1752억원, 가맹점 1만9000개, 택시 호출 417만9000건을 기록했고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155억원 이상 절감해 대구시민과 상생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김정섭 경제국장은 "대구로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대구로'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구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군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농민 불편 없도록 하겠다"

매입 계획 회의, 관계자 20명 참석 전년도비 3.2배 증가한 982t 확보 읍면별 세부일정 따라 실시 예정

군위군은 지난 4일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농협관계자, 읍·면 산업경제팀, 양곡창고주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일품과 해당쌀이며 매입계획 물량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726t이다. 전국 매입물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에 비해 군위군의 경우 눈에 띄게 대진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게 인센티브 수매량을 직접 배정하는 농가직접배정량이 전년도 302t 대비해 3.2배 증가한 982t을 확보함으로써 총 매입량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가 증가함으로써 공공비축미 총매입량에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직접배정량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농가의 경우 배정량이 다소 감소되는 실정이다. 군위군은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도 타작물 재배 참여 농가를 증가 시키고자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다.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 할 경우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배정뿐 아니라 전작물직불금을 하계조사료의 경우 ha당 430만원, 두류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군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지원금을 ha당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군위군은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매입 계획에 따라 산물벼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팔공농협DSC에서 실시하고 포대벼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읍·면별 세부 일정에 따라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대금은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황을 위해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직후에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용환 농정축산과장은 "농가에 매입품종, 수분함량, 포대규격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전' 성료

총 21종목으로 진행 '화합의 장' 킥링 만들기 체험 등 부스 운영

지난 9일 최재훈 달성군수와 추경호 국회의원의, 김은영 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약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달성군이 후원하고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군민체육대회는 '빛나는 열정으로 도약하는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됐다. 개회식에서는 각 읍·면 선수단의 퍼포먼스와 풍물단의 공연이 본격적인 군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군민의 날을 맞아 달성군 민상과 자랑스러운 달성인 상을 시상해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위상을 드높인 이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성화 행사는 대회 전날 비슬산 천제단에서 진행해왔던 성화 채화행사를 현장에서 옮겨와 진행됐다. 채화된 성화는 주요 내빈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채석규 군체육회 부회장과 빈중희 군 체조

협회장 그리고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정 더블스컬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재중학교 김강후 선수와 김도현 선수에게 전달되며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의 성화를 밝혔다.

행사는 생활체육, 육상, 민속·화합경기 등 읍·면 대항전을 비롯해 단체출발, 피구 경기가 포함된 초·중등학교 대항전 등 총 21종목으로 진행돼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부대행사로 사랑의 차나누기, 심폐소생술 및 전통놀이 체험, 타투 스티커 붙이기, 킥링 만들기, 안마 봉사 등 다채로운 체험·홍보부스가 운영됐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홍지윤, 황민호, 방수정 가수의 축하 공연으로 흥을 한껏 돋구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30만 시대를 향해 발전해나가는 달성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달성군민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장충찬 기자jiongchan2114@naver.com

## 도시개발공, 직원 안전 사고 대응력 UP

산업안전보건공 VR 프로그램 활용 사다리 추락 등 안전 교육 실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4일 VR 가상현실을 활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VR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됐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재해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전기 통신 공사 재

해사례 △사다리 추락 △추락(이동식 비계) 사고 등으로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VR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이해도와 사고예방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섭 사장은 "위험성평가 등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市,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시민과 소통'

대구시는 건강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대구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음에 귀 기울이면 나를 만난다'라는 주제로 지난 8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지난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에서 제정한 날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해마다 10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의 정신건

강을 위해 노력한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했다. 기념식 이후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알쓸신잡',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장동선 대표가 뇌과학자의 시각으로 재밌게 해석한 정신건강에 대해 대중들과 재밌게 소통했다.

한편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자신의 마음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눈고장  
군위

# 대구광역시 군위군

## 파워풀 대구와 함께

###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맛·향기에 홀딱 '봉화송이축제' 올해도 대박!

### 4일간 6만8천명 관광객 다녀가 요리대회·시식 행사 등 '큰 인기' 토크쇼·뮤지컬 등 전 세대 호응

지난 3일부터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26회 봉화송이축제'가 6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봉화군과 (재)봉화축제관광재단에 따르면 축제기간 동안 약 6만8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봉화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축제장과 인근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송이축제는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봉화송이와 한약우를 비롯해 제4회 청량문화제, 목재문화축제 등 다양한 연계행사와 문화 예술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고온으로 인한 송이작황 부진으로 대표 주제체험이었던 '송이채취체험'은 송이산 견학과 호두따기 체험으로 변경돼 진행됐지만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 거리를 선사했다.

송이를 눈으로 직접 보고 선별해 구매할 수 있는 송이 판매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한약우, 지역 우수농특산물 판매,



버섯의 민족 송송해뽀 요리대회, 세계 음식(문화)체험관 시식 행사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풍성하게 구성해 마무리했다.

송이판매 부스에 참여한 봉화송이생산자유통연합회는 중국산 송이의 유통 및 타지역 송이의 봉화송이 둔갑 등 봉화송이의 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송이를 구입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원을 제기하는 관광객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아쉽게도 송이 작황은 부진했지만 다양한 입산물(표고, 능이, 딱버섯 등)을 판매하게 되면서 봉화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어린이 관광객을 위한 송이 한송이 켈린지와 3040세대 관광객을 위한 소통형 개그 토크쇼 특가놓고 말해보소 시즌2, 노령층 관광객을 겨냥한 몽룡전 뮤지컬 등 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인기를 끌었다.

특산물 축제인 만큼 먹거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형식당에서는 송이국밥, 능이라면 등 버섯을 활용한 메뉴와 봉화군의 대표먹거리인 봉성 돼지 숯불구이를 판매했으며 소고기 초밥, 닭꼬치, 등 간

편 먹거리 제공을 위한 푸드트럭도 운영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신·구시장 현수막과 가게 위치도를 배치해 축제장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들도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현국 재단 이사장은 "이번 봉화송이축제는 송이 작황 부진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대체할만한 콘텐츠와 우수 농특산물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축제 준비와 자원봉사로 애쓰신 분들, 축제장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게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무섬마을~영주댐' 자전거도로 연결된다

### 행안부 공모 선정, 특교세 5억 확보 영주호 주변지 관광 활성화 '박차'

영주시가 행정안전부 '2024년 자전거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시·군(영주시, 구미시, 광주광역시, 전북 고창군)이 선정됐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무섬마을-영주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희방사역-무섬마을 구간 및 용혈폭포-내명2교 구간에는 바

이크 탐방로가 조성돼 있으나 양 구간이 단절돼 농어촌도로를 이용해 라이딩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 농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로드 1035m를 신설해 무섬마을-영주댐 간 단절된 구간 연결을 추진한다. 이로써 자전거도로 주요 거점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영주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더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예천군,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수립 '최선'

###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

예천군은 지난 8일 군수실에서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관계부서장과 팀장, 영역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군의 인구현황, 환경분석, 사업발굴 등에 관한 최종결과물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인 저출생 대

응 전략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과 연계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예천군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저출생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익명 기자p04140@naver.com

### 의성군, 공공비축미 5750t 매입 산물벼 11월·건조벼 연말까지

의성군은 2024년산 공공비축미 5750t(조곡)을 확보하고 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일품과 해담으로 총 2049t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 형태로 미국종합처리장과 벼 건조저장시설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3621t은 건조벼로 전량 대형포대(톤백 800kg)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기간은 산물벼는 이달 4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건조벼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농가에서는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받은 후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게 된다. 또한 매입 시 지정된 품종(일품, 해담) 이외의 타 품종 혼합 위반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안동시, 오산시와 손잡고 韓 대표 도시 '성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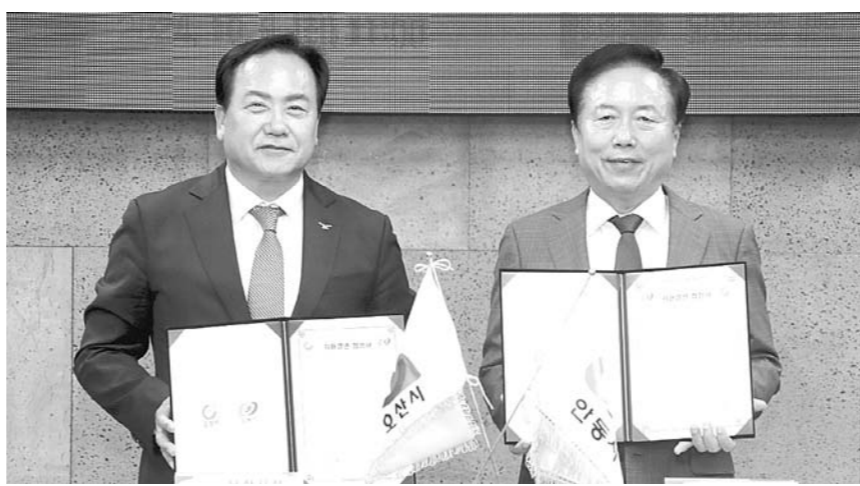
### 자매결연 체결, 상생화합 실현 관광지 할인 혜택 등 적극 교류

안동시와 경기 오산시는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화합을 실현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8일 오산시청을 방문해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강현도 부시장, 이상복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정서는 두 도시 간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대해 서로 협력을 도모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를 방문한 안동시 시장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이에 권기창 시장은 "오산시와 안동시가 손을 잡으면 두 도시가 작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크게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



다"라고 화답했다. 두 도시는 협약서 내용에 의거해 실질적 교류 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지 방문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창 시장은 "오산시는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의 슬로건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공업도시로서

아모레퍼시픽 등의 기업 및 R&D센터를 다수 유치하고 있다. 또한 주요 도로와 철도가 관통하는 산업교통의 요충지이자 평균연령 40.8세의 젊은 도시로서 지속해서 인구가 성장하고 있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시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 의성, 2024 세포배양 국제심포지엄 '성황'

의성군은 '2024 세포배양 국제심포지엄'을 지난 7일, 8일 이틀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난 10년간 세포배양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오고 있는 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과 산업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신 세포배양기술 동향과 응용산업' 이란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포배양 최신 이론편과 기술 △배양육 연구 및 산업 동향 △천연물의 산업화 전략: 인실리코 기술과 세포배양의 만남이라는 3개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정부, 지자체 관계자와 국내외 세포배양 전문가들과 삼성바이오에피스, CJ, 한화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우수 대기업을 포함한 세포배양산업 전후방 기업 관계자 등 총 1000여명 이상 방문했다.

특히 첫째 날 개회식에서 고한승 한

국바이오협회 회장이 '세포배양기술의 중요성과 지역 내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주제로, 둘째 날에는 세계적인 비영리단체 GF의 Bruce Friedrich 회장이 '차세대 농업 혁명'을 주제로 세포배양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초 강연에 이은 4개 세션별 토론에서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동물세포 배양공정 개발, 배양육 및 세포배양 배지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및 제품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가졌다.

김주수 군수는 "지난 10년간 세포배양 산업화를 위한 의성군의 노력에 더해 앞으로도 세포배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의성군이 대한민국 세포배양산업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상주시**  
SANGJU CITY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 상주 가을 절경 '만끽'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시민 삶 더 풍요롭게

### 市, 그란폰도·MTB대회 '성료' 비경쟁 방식 경기 2600명 참가 자전거연맹, 경제 활성화 일조



상주시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2024 상주그란폰도 및 제24회 상주시장배 전국MTB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째 날 열린 그란폰도(Granfondo) 대회는 '비경쟁 방식의 동호인 장거리 경기로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시자전거연맹이 주관해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26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지난 5일 오전 8시 상주 북천 시민공원에서 출발해 상주시 일원과 문경시 일원 101km의 그란폰도와 61km의 메디오폰도 코스로 개최됐다.

특히 개최식에 이어 전국에서 참가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대구군부대 유치를 위한 '상주가 딱이군!' 퍼포먼스를 함께해 상주시의 염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다. 또한 이번 대회는 상주경찰서의 협조 아래 행사장,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 상주시모범안전자회, 자율방범대원, 상주시자전거연맹, 오

토마살 등 200여명이 도로 통제 및 안전관리 요원으로 나서 안전사고 없는 대회가 됐다.

둘째 날 '제24회 상주시장배 전국 MTB 대회'는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에서 4.2km 구간을 순회하는 경기로 이뤄졌다. 상주시자전거연맹에서는 이번 대회

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상주꽃감과 상주화폐를 기념품으로 배부하고 '2024 상주세계모자 페스티벌'의 참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등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

강영석 시장은 환영사에서 "자전거 도시 상주에서 열린 이번 경기에 참석하신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그란폰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행복한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성적은 그란폰도 대회 남자부 통합 1위 나현재(평택시), 여자부 통합 1위 이해원 선수(양산시), MTB 대회는 남자부 통합 1위 윤준현(서울시), 여자부 통합 1위 성미희(울산시)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 구미독서문화축제 성황리 마무리 책 중심의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2024 구미독서문화축제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시립중앙도서관과 형곡근린공원에서 성료됐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다'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도서관, 지역 서점, 독립출판사, 독서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 사회단체가 참여해 책 중심의 문화 축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부스를 대폭 확장해 북토크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김호섭 부시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책 읽는 가족상'과 '1000권의 그림책 완독 어린이상' 시상도 진행됐다.

북토크 1부에서는 정유정 작가, 2부에는 조예은·천선란 작가가 참여해 독자들과의 대화를 펼쳤고 둘째 날 3부에는 김기태·이혁진 작가, 4부 김화진·최진영 작가가 참여해 오조·임경선 작가와 함께 2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작가와 독자들은 한국문학과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며 전국에서 참석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야외 공원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구미어린이청소년문화연대의 패러디 시 쓰기, 어린이도서연구회구미지회의 눈으로 손으로 읽는 그림책 등 26개의 독서문화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독립출판서점 책봄 등 북마켓 14개, 로컬 크리에이터 플리마켓 10개 부스가

운영돼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숲놀이터와 독서캠핑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독립출판 북페어에는 서울과 군산 등에서 온 독립출판사들이 참여해 독특한 출판물들을 선보였으며 지역 밴드의 버스킹 공연과 '시, 그림책이 되다' 50선 전시를 비롯해 기획전시도 더해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열린 '2024 구미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해 시민들이 책과 음식을 함께 즐기며 더욱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김호섭 부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임 관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독자들이 함께 책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들이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 고령군, 치매환자 가족 정서 안정 돕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가맹업체·기관 협력해 바리스타 체험으로 긴장감 완화



고령군은 평일 직장 및 업무로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난날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대가야시장 고객센터와 치매안심가맹점인 전통태 카페에서 운영했다.

'갑진년 값진 돌봄, 일상의 회복'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가족들의 건강과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일단 멈추기 △차분히 보기 △고스란히 깨닫기 △그대로 보듬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갑진년 값진 힐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치매안심가맹점과 장기요양기관 협력하고 치매가

족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바리스타' 체험 활동으로 전통태 카페에서 운영됐다. 이번 2024년 하반기 치매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들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습관화된

긴장에서 벗어나 자신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령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족들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습관화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매 상담,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 칠곡,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축제 성료

칠곡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제12회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축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2022년부터는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난 4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6일 체험 부스 운영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재욱 군수 내외를 비롯해 이상승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순범·정한석 도의원 등 주요 내빈들과 200여명의 지역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캘리그라피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유공자 표창, 다문화 자녀 장학금 전달, 개회식, 기념사, 축사, 특별 공연 순으로 구성됐으며 무지개빛 우산 퍼포먼스로 아름다운 화합의 순간을 장식했다.

이후 지난 6일까지 피스빌리지 ZONE에서 '다문화로 세계 여행 가

자!'를 테마로 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2000여명의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공향 체험 티켓 발권, 인도 빈디 및 의상 체험, 4컷 가족 사진 촬영, 한국 전통놀이, 친환경 수세미에 중국 용 그림그리기 등 국가별 문화와 놀이를 체험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송홍달 기자song81700@naver.com

## 김천시, 가을 향기 가득한 들차(茶)회 개최

### 예다회 등 500명 참석 '대성황' 자연·전통차 문화 우수성 널리

취와 함께 참가자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했다. 예다회원들의 소장 다구와 도자기 전시 코너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천시평생교육원에서는 지난 6일 사명대사 공원에서 김천시예다회 주관으로 '김천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들차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김천의 자연과 전통차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날 들차회에는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천의 차(茶)인들과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사명대사공원을 찾은 시민,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김경희 시 복지환경국장은 "우리 전통차의 멋스러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박지수 회장은 "앞으로도 김천시에 다문화 다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차문화 행사를 계속해 가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천시예다회 회원들은 다회별로 향기로운 차와 다양한 다식으로 방문객을 맞았다. 특히 차향과 어울린 팬플터 공연, 시 낭송, 다도 시연은 사명대사 공원의 아름다운 경

김천시예다회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 전통예절교육, 현충일 헌다의례, 평생교육학습박람회, 문화예술회관 송년의 밤 전통차 시연 등 올바른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김광수 기자kgs5140@naver.com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기아충효대리점**  
대표 박종찬

경주시 태종로 382-3  
☎ 054-742-1010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 “지속 가능한 포항 발전 위해 현안 사업 속도” 청도군 ‘제1회 복지박람회’ 18일 팡파르

### 이강덕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바이오미래산업 현황 공유 등 읍·면·동장 120명 참석해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8일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부서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미래산업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핵심 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테마보고에 이어 실·국별 주요 현안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테마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시의 노력으로 차별화된 바이오 인프라 구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한 데 이어 후속 R&D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생태계를 완성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할 포항형 인공지능 산업 전략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푸드테크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심사 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국회

심의를 빈틈없이 대응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마련과 핵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장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대형 건설사업에 하도급 등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신산업 육성과 국비 예산 확보 및 각종 현안 사업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한다”면서 “풍요로운 포항과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동현 기자dohg0811@naver.com

### 군 지보험 주관 화합의 장 ‘눈길’ 새마을공원 일원서 복지 정보 제공

청도군은 오는 18일 청도군 새마을공원 일원에서 제1회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군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교류 및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또한 청도군민과 사회복지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자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군민을 더 힘나게! 복지포 하나 되는 어울림 한마당!’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다.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 등이 참여해 민관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지역 내 20여개 복지기관 및 9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홍보·체험 부스, 플라마켓 등을 운영하며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 마당과 재능 나눔 공연을 준비했다.

김하수 군수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회 복지박람회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다양한 사회복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청도군 복지정책을 알릴 기회도 동시에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울릉-글로벌ESG협회, 환경개선·보호 지원 체계 구축 ‘최선’

### 글로벌 아일랜드 프로젝트 밑거름 상호협의를 통한 공동 사업 추진해

울릉군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해남전일관에서 (사)글로벌ESG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울릉군과 (사)글로벌ESG협회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울릉군의 환경개선 및 보호를 포함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사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울릉군 색깔 입히기 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육상 및 해양쓰레기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설치, 하수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설치 그리고 ESG 기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 및 보호 등



상호협의를 통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글로벌ESG협회는 ESG경영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ESG 관련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지역산업 발전에 협

력하기로 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울릉군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울릉 글로벌 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에 상당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단기적인 환경개선 및 보호 등의 분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 경산, 청년 디자이너와 기업 소통 창구된다

### 16~18일 프리커넥션 워크 열려

경산에서 경북살이 청년실업실을 운영하는 ‘프리디랩’이 오는 16~18일 Y-STAR 경산 청년창업작소에서 ‘프리커넥션 워크’를 개최한다.

이번 프리커넥션 워크는 프리디랩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이 로컬 브랜드와 협업해 만든 일감 연계 결과물을 전시하고 창업 기업 및 기관과 소통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프리랜서·로컬 브랜드 프로젝트 성과 전시, 프리디랩 아카이빙 전시, 디자인 포럼, 로컬 브랜드 팝업스토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디자인업 종사자뿐만 아니

라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 일반인, 기업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 디자인 인력이 부족한 로컬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니즈에 맞는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일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프리디랩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전문 디자이너와 디렉터를 매칭해 지역과 상생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제는 온라인·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울진, 서비스 신청 방법 확대 안내

울진군은 지난 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회당 최소 50

분 이상, 대면)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가격은 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상은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위(Wee)센터·클래스, 청

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등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제공기관(전문심리상담센터)을 선택해 상담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 가능하고 10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온라인 서비스 시행 후에도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희망자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 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 영천, 어르신 건강관리 ‘힘써’ 3차시 스마트 건강교실 ‘호응’

영천시보건소는 지난 5월 운영했던 ‘스스로 관리하는 스마트 건강교실’ 2차시에 이어 3차시 프로그램을 지난 7일, 8일, 오는 15일 3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3차시 참가자는 2차시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임고면 평천2리, 대창면 오길리, 고령면 부리 경로당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가자 25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총 6개월간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 전·후의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등 건강 변화를 비교하고 참여자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획득한 포인트에 비례한 미션 성공품 수여식을 진행한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sy92020@hanmail.net

<p><b>가인전력에너지</b> 대표 김 영 철</p> <p>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p>	<p><b>하나자동차매매</b> 대표 박 원 섭</p> <p>경주시 동단로 108(용강동) ☎ 054-749-5858</p>	<p><b>경상투데이</b> 광고 문의</p> <p>대표전화 ☎054-748-0070</p> <p>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p>
---	---	--



### 문경 '경상감사 교인식 도입행사' 퍼레이드

읍면동 풍물단·시민 등 500명 모여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응원

문경시에서 주최하고 비밀언덕 경상감사교인식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 경상감사 교인식 도입행차가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인 지난 3일 문경시청 전경에서 개최됐다.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경상감사 교인식 재현 출연진과 내빈, 읍·면·동 풍물단, 지역 내 중고등학교 및 시민 등 500명이 모여 경상감사교인식 재현 행사를 관람하고 문경시의회까지 도입행차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조선시대에는 관찰사가 새로 부임할 때 도계지역에서 떠나는 관찰사가 관인과 병부를 인수인계하는 교인행사를 했는데 이곳 문경은 경상도의 도계지역으로 문경새재에 위치한 교귀정에서 교인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경유록' 등에 전해 오고 있다.

문경새재 교귀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관찰사 임무교대소로서 재현되는 교인식의 의의는 영영일기(嶺嶺日記)에 기록돼 있는 1751년(건

륭16) 6월 15일 교귀정에서 행해진 교인식 장면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번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입행차는 영남지역의 전통문화를 복원 계승하면서 취타대, 의장대, 대고, 가마, 수행인원, 읍·면·동 풍물단, 다문화가정 및 시민참가자들의 행차 행렬이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신현국 시장, 이정걸 시의회위원장, 이경옥 시교육장, 고정한 노인회장, 다문화대표, 어린이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가마를 이어 타는 이벤트 및 우중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경에서 읍·면·동 농악대와 함께 '2031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대동 한마당을 펼쳐 시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현국 시장은 "곳은 날씨에도 경상감사교인식 및 도입행차가 함께 주신 시민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민의 하나된 모습을 또 보게 됐다"라며 "우리의 하나된 마음으로 '2031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hyun0085@daum.net

### 경주교육청, SRC 만들기 연수로 역량 UP

과학발명교육센터 동아리교사 대상 최신 기술·코딩능력 심화향상 기회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에서 발명교원 동아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SRC 만들기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화성 탐사 로버의 원리를 이해하고 4륜구동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15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해 아두이노 코딩을 통한 자율주행 기능 구현 방법을 배웠다.

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는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최신 발명 기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SRC 제작 과정은 실습 위주로 진행

했으며 교사들은 울퉁불퉁한 지형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로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며 흥미로운 경험을 쌓았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임모 교사는 "SRC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우수시대를 열어가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탐구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미래의 발명 그리고 과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 세계인 하나된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성료

유학생·다문화 가정도 동참 눈길 패션쇼·드론쇼·공연 등 큰 호응 한복·모자의 멋 홍보 효과 '톡톡'



상주시는 '상주모자 세계를 휘감다'를 주제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상주대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2024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swhf)'이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지역불문 내·외국인을 망라해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드론쇼, 패션쇼, 경연대회, 주제공연,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밤낮 구분 없이 축제기간 내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세계모자페스티벌인 만큼 축제를 즐기는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도 눈에 띄었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다양한 지역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는데 모자만들기, 모자올림픽, 모자나라키즈랜드, 모자포토존, 모자트리 등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많으며 크게 호평했다.

축제장 곳곳에는 모자조형물, 모자조명, 모자판매체험전시 등으로 가득해 축제의 상징성과 고유 분위기가 돋보였으며 한복진흥원 전시관과 상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는 '왜 세계모자페스티벌인가'를 언급하며 명주의 고장으로서 한복과 모자의 멋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100가지 상주의 맛이라 일컬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 부스존이 마련됐는데 한우축제장을 포함해 읍·면·동 직영식당, 지역 내 전문식당, 우리음식연구회, 시장술뚜껑팀, 청년푸드트럭 등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음식들이 1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돼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다양각색 음식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었다.

화려하게 제작된 특설무대에서는 축하공연이 열렸으며 첫날 개막공연에는 마이진, 신인선, 노지훈, 미스김이 스타필드 날엔 감성콘서트로 박상민, 김

종서, 도원경, 최희선 밴드, 마지막 날 폐막공연에는 송가인, 홍진영, 진해성 등이 초청돼 축제장을 뜨겁게 달궜다.

강영석 시장은 "국내 최초 모자축제로서 올해 제2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축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내년도도 풍성하게 준비해 여러분을 초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원 기자 changwan12@naver.com

### 향도 좋고 건강까지 딱 '영양 수비 능이축제'

12·13일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서 능이 판매·나눔행사·공연 등 다채

영양군은 오는 12, 13일 이틀간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수비능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수비능이축제'는 영양의 청정 자연에서 재배되는 능이버섯, 송이버섯을 판매하는 행사로 지난 2022년 수비면 주민들이 축제위원회를 발족해 시작했다.

'1능이'라고 불리는 능이버섯은 가

에 참나무 등 활엽수림 아래 땅 위에서 무리 지어 자라나 특유의 향을 가져 향버섯이라고도 불리며 공기가 맑은 곳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만 채취가 가능하며 식이섬유, 비타민, 에르고스테롤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탁월해 '영양 과잉'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혈관 건강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화력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 축제기간 중에는 능이관련 나눔행사, 맥주 빨리 마시기 등 참여행사, DJ 공연, 축하 공연 등 볼거리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능이 판매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건강에도 좋고 향도 좋은 능이버섯을 산지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수비 능이축제'를 준비했다"라

며 "많이 방문하셔서 즐거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비면의 수려한 산세를 바탕으로 자라난 자연의 선물 능이버섯을 산지에서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제3회 수비 능이축제'에 방문해 가을의 향을 만끽하길 바란다.

김경태 기자 taef66811@naver.com

### 청송군 '경북 내륙권 지질대장정' 성황리

초등 가족과 지질공원 탐방·이해

청송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경북도 내륙권 지질대장정'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문경시, 의성군과 청송군이 공동으로 기획한 지질공원 팸투어로 경북도 내륙에 위치한 지질공원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2~4인 가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질전문가 및 지질공

원 해설사와 함께 청송, 문경, 의성 지질공원을 탐방하며 각 지질공원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청송 세계지질공원 탐방에서는 참가자들이 주왕산, 백석탄, 신성리 공동발자국 등 청송의 대표 지질명소를 방문하며 청송의 지질학적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또한 '지구와 닮은 청송 사과따기' 체험을 통해 청송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맛보고 지질공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이 외에도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트레쉬백을 제공해 쓰레기 되가져오기 실천을 장려, 제로웨이스트 물품 사용을 권장, 업사이클링 기념품을 활용하는 등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윤경희 군수는 "참가자들이 이번 경북도 지질대장정을 통해 지질공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 wdr1211@hanmail.net

# 2025 APEC 정상회의

##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종합 일간지

### 경상투데이

### 운영위원회

# 경북도,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산업 선도한다

###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4대 추진전략 112개 세부과제 발굴 기술 디지털화·제조 지능화·인력 양성·기업 간 협업 등 '집중'

경북도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 맞춤형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지역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정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 4대 추진전략 112개 세부과제(5조 7373억원 규모)를 발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11월에 '경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경북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및 과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공모 사업에도 도전해 크고 작은 예산들을 확보했다.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수요·공급기업 윈스톱 밀착 지원으로 민간주도의 지속 가능한 DX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특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전후방 가치사슬 DX' 사업(국비 100억원)으로 전기·전자·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의 4대 운영지원 및 3대 생산 공정 애로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서비스 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주력사업인 철강·금속산업 제조 데이터 확보와 실증 테스트를 위한

핵심 공정장비 도입을 위한 '철강고속 디지털 전환 실증 센터'를 구축(국비 140억원)하고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국비 141억원)으로 포항 호미곶 일대에 디지털트윈 시범구역을 조성해 재난, 환경, 관광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 맞춤형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디지털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K-하이테크 플랫폼' (국비 30억원)은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이 활용,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지원사업', '경북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국비 325억원)를 통해 AI, 블록체인 등 AI·복합교육으로 자기주도형 창의·혁신적 디지털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관학연 협업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 대학과 함께 12

차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113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된 산업 특화형 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미디어테크 아키텍처 구축 △2025 APEC정상회의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원형 DX 생산공정 시스템 조성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기술·생산 공정 DX 전환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기술의 디지털화를 넘어 제조의 지능화, 기업 간 연결과 융합 얼라이언스 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DX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DX 가속화, 고급인력 수급난 해소, 첨단 DX 실증 및 육성 등 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주지역 인재 취·창업의 기회 '활짝'

### 동국대 WISE, 44개 기업·기관과 취업박람회 통해 채용·정보 공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WISE 캠퍼스 문무관에서 '2024 WISE Dongguk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500여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국민연금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은 비롯해 동국대 WISE 캠퍼스가 운영하는 U.C.Dongguk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진배어링, ㈜광진상공, ㈜다스 등 지역 우수기업을 비롯한 총 44개 기업과 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여기업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서류 및 1차 면접을 하는 현장 채용 ZONE △기업홍보와 채용 정책 설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채

용 상담 ZONE △외국어 시험, 자격증, 현장실습, 취업 상담 등이 이뤄지는 경력개발 상담 ZONE과 △퍼스널컬러 컨설팅, 이미지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벤트 ZONE으로 진행했다. 또 ㈜호텔롯데 시그니엘 부산, 파크하얏트 부산, 제주시화월드, 아코르엠베서더, ㈜하우스오브초이에서 진행되는 기업, 채용설명회와 우수 중소기업 진로 가이드 특강, 외국계 기업 성공 취업전략특강도 실시했다.

하성 센터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 지역 청년은 창업과 취업의 꿈을 이루고 참여기업은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기업과 구직자 간의 부조화를 줄여 지역 청년과 지역 우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상주배, 대만에 16t 수출행... 해외시장 개척·판로확보 주력

### 공검농업협동조합 수출 선적식 63농가 생산, 현지 소비자 공략 매해 미국·대만으로 수출 나서

상주시는 지난 4일 공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안진기)에서 생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신고) 수출을 위한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배는 16.2t(4500만원 상당)으로 공검면 63농가가 약 48ha에서 생산한 배이며 농업회사법인(주)에버굿(대표 김한상)을 통해 대만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판매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수출효자품목인 배를 해마다 미국, 대만으로 수출함으로써 국내 시장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상주배의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은 "공검농

협에서 배 수출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생산 농가 및 수출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상주배 생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지속적

인 수출확대를 통해 국내시장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 김천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 지원

### 14일~25일 온라인·방문 접수 38억 자금 규모, 4% 이차보전

김천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10월)을 3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운전자금 지원 시기는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4·10월 수시분으로 나뉘며 오는 10월 수시분 자금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 건설, 무역,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 내고장 TOP기업 및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투자유치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계획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광현 투자유치과장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김천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시에서 대출금리 일부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의성군, 지역상품 전문 판매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실시

### 소비자 니즈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 실무 기술을 통한 사업 성공 목적

의성군은 '지역상품 전문 판매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교육은 데이터 분석, 광고 효율화 등 실무 기술을 배워 지역 판매자의 사업 성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5월에 수강생의 약 75%가 스토어를 개설해 실매출이 발생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기 교육에 이어 8월 20일부터 2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화과정은 '로컬셀러 양성교

육 기본과정(1.2기)' 수강자나 온라인 스토어 활용이 능숙한 지역 내 농업인 및 창업인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상품 선정과 판매 전략 △온라인 마케팅 기술 △쿠팡 플랫폼 활용 방안 △광고 효율 극대화 노하우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역상품 전문 판매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교육은 10일부터 오는 11월 14

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6회에 걸쳐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크게 활성화돼 지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일자리팀(054-830-6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영천, 장기재직 공무원 디딤돌교육



영천시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장기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생2막 디딤돌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장기재직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후 여가생활 관리, 제주 자연환경 체험, 재테크 노하우 등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오랜 공직생활을 함께한 동료들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미래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간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동료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식열 기자jsy932920@hanmail.net

성주,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집중'



성주군은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GAP인증능가 및 희망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GAP 인증능가는 2년에 한 번,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에서는 GAP 인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약 안전사용,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친환경 농업미생물 활용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지난날 기준 총 1127호의 농가가 GAP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 정현대 불교복지협회장, 글로벌 봉사 정신 '귀감'

30년간 스리랑카에 성금·집 지원 직접 산간오지 방문 등 숭선수범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어려움에 먼저 달려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30년간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단체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보살펴온 정현대 불교복지협회 회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1994년부터 스리랑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2000만원)과 학용품(500만원 상당) 등을 전달했으며 어려운 이웃에 집(30채)도 제공했다.

현재 스리랑카는 IMF로 인해 어려운 실정으로 정 회장은 직접 산간오지를 찾아가 전달했으며 올해는 가

운 지인들의 도움과 회원들의 협조로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친 뒤 다음을 약속하고 귀국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선물했다. 또한

학용품과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기부자가 학생들과 연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더 큰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정현대 회장은 30주년 봉사를 통해 "누구보다 자신이 즐거워 하는 봉사 일 때 상대에게도 즐거운 마음이 그

대로 전달된다"며 "봉사는 그저 즐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마지막 수도인 캔디(Kandy)시는 오래된 역사도시로써 경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다.

손동현 기자dohg0311@naver.com

## KORAD,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우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이하 공단)이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 20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올해 수산인더스트리, 고도 기술 등 협력사 5개 사 대상 위험성평가 절차서 개정, 유해위험요인 도출 등 기술지도를 통해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했으며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 제안·신고제도, 위험성평가가 반영된 관

리감독자 순회점검, 안전보건 강조주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향후 스마트 안전작업장 구축 등 재해예방과제 발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조성돈 이사장은 "공단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안동, 시민과 국립의대 유치 '한마음 한뜻'



안동시가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하나가 된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페스티벌과 연계한 두 차례의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 시민 1000여명과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의대유치 퍼

포니스를 진행했다. 축제장 내에는 안동대학교 주관 국립의대 유치 홍보 부스를 운영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권기창 시장은 "의대유치 활동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 청도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확립 '적극 앞장'



청도군 재향군인회는 지난 8일 보훈단체장, 향군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보의식을 새롭게 확립하고 군민화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향군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 단결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하수 군수는 "재향군인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향군인회가 적극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동 정

제31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식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1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0일 오후 1시 40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20회 국제유교문화사예대전 시상식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유교문화사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한다.

비살은 회원 화합 한마당 참석



박남서 영주시장은 10일 오전 9시 30분에 풍기인삼축제장에서 개최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화합 한마당에 참석한다.

대창면민체전·가을음악회 개막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10일 오전 10시 대창면민체전 운동장서 열리는 제7회 대창면민체육대회 및 가을음악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봉화교육청, 소통하는 조직 만들기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하반기 거꾸로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세대의 직원이 선배 직원의 멘토가 돼 새로운 문화를 함께 나누고 소통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영록 교육장을 비롯한 부서장들과 2024년 신규 임용 지방공무원 6명이 참석해 팀을 이뤄 볼링 경기를 함께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신규공무원들은 "교육장님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운동도 즐기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2024 초대합니다

# 신달빛라기행

07.20(토) 08.17(토) 09.21(토) 10.19(토)  
경주역사유적지구 일대

별자리 티투 체험 · 백동 꾸미기 · 지역 플라마켓 · 달모형과 함께 셀프 포토존 및 인화 · 국악버스킹 · 전통음료체험 · 선덕여왕과 촬영 · 유적지드레킹

문의/의사/항 054-777-1950 | www.silla.or.kr | 신라문화원

주최 신라문화원 후원 경주시



2024 전국휠체어러키 리그대회 폐막 전 및 제16회 전국휠체어러키 선수권 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문경 실내체육관과 배드민턴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전국휠체어러키 리그대회는 지난 5월 경북도 문경시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거제, 인천, 청주, 무안을 거쳐 다시 문경에 최종 결승 경기로 찾아왔다.

휠체어러키는 휠체어농구, 아이스하키, 럭비의 경기 규칙을 바탕으로 탄생해 각 팀에 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휠체어끼리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신현국 시장은 "전국을 돌며 멋진 경기를 펼쳐주신 선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휠체어러키 종목이 대표적인 장애인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경시에서도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진보 안동지사, 장기요양기관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는 지난 달 25일 안동시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우수봉사자 포상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해마다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봉사자를 선정·포상해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올해 포상은 △마음행복요양센터 류기련(이사장 표창) △행복재가복지센터 이진선(지역본부장 표창) △전원일기요양원 권경민(지역본부장 표창) 등 3명이 수상했다.

김종희 지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발전에는 봉사자들이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돌보고 헌신한 공이 크다"면서 "공단도 장기요양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봉기회, 더 큰 봉화 발전 위한 '통큰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원 전달 지난해 소속 5사, 3.6억 기부도

봉기회의 문창기 회장 외 10명은 지난 3일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고향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봉화출신의 출향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봉화 기업인 모임인 봉기회는 지난 2021년에 11명으로 결성돼 다방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봉기회 소속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과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 최삼섭 대원플러스 그룹 회장, 이재환 톨텍 회장, 금석현 해성 대표 등 기업인 5명이 극한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3억6000만원을 봉화군에 기부하기도 했다.

박현국 군수는 "출향 기업인들의 봉기회, 더 큰 봉화 발전 위한 '통큰 기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봉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출향 기업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자체별 담세

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또는 NH농협은행(전국 모든 지점)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재대구 개포면민회, 행복한 예천 만들기 훈훈

예천군은 지난 8일 재대구 개포면민회 회원들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510만원을 전달받았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 중인 가운데 개포면에서는 마음을 전하는 출향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재대구 개포면민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을 보였다.

정용춘 회장은 "재대구 개포면민회

원들을 비롯한 각지 출향인들의 마음이 모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라고 앞으로도 고향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고향을 향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우리 예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의성, 자산관리공 대경본부로부터 희망 나눔



의성군은 지난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의성군 취약계층을 위해 3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지역 내 저소득 조손가정 및 장애 부모가정 1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원대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 어려

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아 부군수는 "기탁해주신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봉화 춘양면, 영주 풍기읍과 기부문화 '앞장'



봉화군 춘양면은 영주시 풍기읍과 함께 지난 4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과관매출보 행사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 행사에서 춘양면과 풍기읍 공직자 10여명은 자발적 참여 속에서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상호 기부하고 각 지

역의 답례품을 주고 받으며 협력과 교류 의지를 다졌다. 장원경 면장은 "이번 기부가 두 지자체 간 상호우호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고령 운수면 지보협, 생필품 지원



고령군 운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하반기 특화사업인 '정성 가득 생필품 꾸러미 지원'을 실시했다. '정성 가득 생필품 꾸러미 지원'은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직접 장을 보기에는 무거운 생필품으로 꾸러미를 제작해 대상자의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이다.

위원들은 일대일 결연을 맺은 '일촌 가구'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생활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제종호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무거운 물건을 사서 집까지 옮기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집까지 배달해줘 생활에 많이 도움을 주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김천, 2024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김천시는 지난 7일 택시업계 경영난과 택시 이용 승객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년 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택시 감차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택시 감차규모·보상금액·출연금을 확정하고 향후 자율감차 계획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날 결정된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일반택시 13대로 감차 보상액은 대당 4400만원이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내 택시의 적정 대수 유지를 위해 2024년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Advertisement for 'ICT Hub City Gyeongsan' featuring a cityscape and digital icons. Text includes 'MY UNIVERSE GYEONGSAN',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and 'ICT허브도시 경산'.

# ‘한국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저력 선보인다



구미청소년원드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2일 형곡공원 전국 단위 행사 3년 연속 대상 문체부 장관상 등 위상 ‘우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 테마로 미래·과거 10년 발차취 되새겨

구미청소년원드오케스트라가 오는 12일 구미 형곡공원에서 제11회 정기 연주회 ‘NEW GENERATION(새로운 세대)’를 개최한다. 구미청소년원드오케스트라는 지난 2013년 첫 창단을 시작으로 해마다 정

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많은 공연들로 지역청소년들의 참여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 5·6·7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3년 연속 대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 오케스트라의 최고봉이라는 찬사를 아낌없이 받았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난 10년간 오케스트라의 발걸음과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10년의 오케스트라의 발걸음이 느껴지는 연주회를 선보인다. 호두까기 인형, 애니메이션 OST, 록(rock) 등 다양한 음악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성악가 최요섭·이은경이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네

순 도르마’, 뮤지컬 마이페어 레이디 중 ‘밤새도록 춤’ 곡으로 성악과 뮤지컬을 동시에 선보인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서채린의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테마곡 협연이 펼쳐진다.

최용규 지휘자는 “10월이라는 계절이 주는 신선한 날씨 속에 클래식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구미시민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철 단장은 “형곡동 자치위원회를 비롯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깊어가는 가을밤 구미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윤오세가연구소 유정 정은숙의 수유문화칼럼



원림, 수경(水景).

## 명(明) 식물 속 사군자, 문인의 관조(12) (觀照)



부용도, 대만고궁박물관.



이간, 사청도(四淸圖)부분, 베이징고궁 박물관.

인간과 자연의 친숙함이 명대의 풍부하고 성숙된 화조화의 특성에 다양한 표현들로 이어져 왔다. 서법(書法)의 전서(篆書), 예서(隸書), 초서(草書)의 필력이 화초와 사군자의 특징에 반영됐다. 거친 바위의 비백(飛白) 표현과 구름, 물결, 진채 그리고 담채의 유연한 기법들이 송, 원대의 문인화가 작품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예술의 성장은 역사성, 시대성, 경제성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발견돼 왔다. 예술문화 속에서 두루마리 권(卷)의 독특한 예술 양식은 독자적인 중국예술의 특성을 보인다. 시(詩), 서(書), 화(畫)가 아우러지는 종합예술의 미려한 지적 활력이 화조화를 이끌고 있다.



왕언, 죽석집금도(竹石集禽圖).

# 무형유산의 가치 조명... 영남요 사기장 공개행사 ‘주목’

300년 전통 국내 유일 사기장 가문 조선백자의 멋·역사 등 널리 알려 망명이 가마·제작기법 전학 눈길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지원하고 전승자가 주관하는 국가무형유산 사기장 김정옥(83·영남요) 공개행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기·예능 대중화와 보존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종목별로 개최됐다.

문경의 영남요 7대 국가무형유산 백산 김정옥 사기장은 전통 망명이 장작 가마와 발물레를 고집하는 한국도예의 거장으로 지난 1996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유일 사기장이다. 조선 영조시대 이래 8대 우남 김경식(57·사기장 전승교육사)과 9대 김지훈(29·사기장 이수자)에 이르기까지 300년에 걸쳐 조선백자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국내유일의 사기장 가문이다. 김정옥 사기장은 “우리의 전통 도자 기예는 자연의 순리가 담겨있고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300년 전 김취정 선조에 의해 시작된 우리 도예가의 삶은 그분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아들까지 운명처럼 이어져 이렇게 9대를 이어왔다. 조선 영조시대 이래 현재까지 지속돼 온 도자 가문의 계승자인 저는 사기장 공개행사를 통해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사기장 공개행사는 첫째 날 망명이 가마 소성과정과 발물레 시연 및 도자기 만들기 체험,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문경국가무형유산의 전시실에 마련된 9대 도예가문의 삶과 역사 그리고 사기장의 달항아리 미디어아트, 사기장의 작품세계 전시 관람 및 강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문경국가무형유산의 제1전시실에는 영남요의 1대 김취정 사기장이 제작해 대를 이어 사용한 발물레가 전시돼 있다.

이 물레는 국내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전승돼 현존하는 것으로 영남요 도예가문의 사기장인들이 대를 이어오며 조선말의 격변기,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압축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등의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며 사기장인으로서 삶을 이어왔던 장인들의 전승 의지와 계보의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남요의 유물이다.

공개행사에서는 해마다 전통도자의 제작기법을 대중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 도자기가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망명이 가마를 열고 도자기를 꺼내는 과정은 일반인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로 1년에 한 번 ‘공개행사’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대상 ‘염은주’ 쾌거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제11회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심사결과 최석담 염은주 작가의 ‘행초서’ 작품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지난 2014년 첫 시행

됐으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국내외에서 총 727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심사 결과 442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이수진(문인화)씨가 △우수상은 장명숙(한글)씨, 김은자(예서)씨, 조종순(행초서), 옥태석(문인화)씨, 안옥경(캘리그래피)

씨가 선정됐다. 기로 부문에서는 △김성기씨의 작품이 최우수상 △권가자씨의 작품이 우수상으로 각각 선발됐다. 선정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5점을 비롯해 기로 최우수상 1점, 기로 우수상 1점 및 특선 101점, 입선 332점의 작품은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양동마을 내 주요 한옥, 정자 및 서당 등에 전시할 예정이다. 손동현 기자dorgh0311@naver.com

시상식은 전시 기간 중 첫날인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서예대전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서예 문화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소중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이 국내외 서예 저변 확대와 마을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rgh0311@naver.com

# 울진 연호문화센터 기획공연 15일 3팀3색 가을 콘서트 선사

울진군은 ‘10월 문화의 날’을 맞아 해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연호문화센터에서는 기획공연 ‘3팀 3색 가을콘서트’가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되며 울진의 대표 클래식 팀 ‘라파르트리오’,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정통 재즈밴드 ‘연

관호 퀸벳’ 등 3팀의 공연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악기를 이용한 클래식, 재즈를 비롯한 드라마도 깨비의 수록곡 ‘Beautiful’, 뉴진스 ‘Ditto’, 디즈니와 퀸 메들리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노래들을 신선한 아카펠라 음악으로 무료로 선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를 참고, 문의는 전화 (054-789-5488)로 하면 된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 더블에이치플랜

## DHP

### ▶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 대표 현 병 희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더블에이치플랜

Mobile : 010-3517-1105

칼럼

바닷속의 악마(上)



임용한  
KI인문경영연구원 대표

고대부터 사람들은 하늘과 바닷속을 전장으로만 드는 상상을 했다. 이카로스의 전설이 탄생한 곳은 이탈리아에 있던 그리스 식민도시 쿠마에였다. 이곳은 모든 그리스 식민지 중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그만큼 위험했다.

그리스인들은 바위산으로 막힌 산 안쪽 지역에 터널을 파서 거주지를 세웠다. 바위산과 바다로 막힌 요새도시, 해안 바깥쪽 섬에 또 하나의 식민도시가 있었다. 하늘을 날아서 그곳으로 갈 수는 없을까? 그것이 이카로스의 전설이 탄생한 배경이었다.

정말로 쿠마에의 기술자들이 행글라이더나 기구 같은 것을 구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전설에 의하면 이카로스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갔다가 깃털을 붙인 밀랍이 녹아 추락한다. 그가 추락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지역이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포인데 이곳은 지금도 그리스 고대 신전이 그리스보다 완벽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유명한 그리스 식민지였다. 최북단의 요새와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최대의 그리스 식민지. 이 둘 사이에 하늘이 있다.

이카로스의 비행이 막연한 꿈이었다면 바닷속의 전쟁은 보다 현실적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

치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엔지니어였고 그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설계들이 전쟁 도구였다. 그중에는 잠수장비도 있다. 그는 배에서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와 잠수복을 설계했다. 원리와 외형은 근대의 잠수장비와 유사하다. 잠수부는 긴 장을 들고 바다 밑을 걸어 적의 배 밑에 접근해 구멍을 뚫는다.

잠수정에 관해서는 다빈치보다 더 오랜 전설이 있다. 다빈치도 이 전설을 알았던 것이 틀림없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잠수정을 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갔었다는 전설이다. 이걸 확인 불가능한 전설이고 잠수함이 실용화되지도 않았다. 다만 잠수정의 아이디어는 이카로스의 날개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철도가 등장하기 전에 바다는 대량으로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하면서 최고의 교통수단이었다.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 청동기 시대에 고대의 바다 민족들은 지중해를 건너, 크레타,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침공했다. 이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길이 정해져 있는 육지와 달리 드넓고 긴 해안을 경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이킹이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병력이나 보급물자를 실은 수송선을 격침한다면 침략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다. 한니발을 지원하려 오던 카르타고 지원부대가 침몰하지 않았더라면 한니발은 로마를 정복했을 수도 있었다. 바다 밑에 숨어 있다 이런 수송함대를 격침한다면 전쟁의 승부를 일거에 바꿀 수 있었다. 그야말로 꿈의 무기, 진정한 게임체인저

였다.

◇바다의 늑대

아무리 절실한 꿈의 무기라도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잠수함을 제작하는 기술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최초의 잠수함은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이 찰스턴 항구의 봉쇄를 풀기 위해 건조했던 헨리호였다.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실전에 투입돼 최초로 제 역할을 한 즉 적선을 격침한 최초의 잠수함이었다.

헨리호는 선수에 장착한 어뢰로 북군 함선 한 척을 격침했지만 자신도 귀로 중 침몰하고 말았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격침할 때의 폭발 충격으로 헨리호도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기기고장이나 조작실수로 상승이 불가능해져서 침몰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엉성했던 헨리호의 비극적인 성공은 잠수함의 발전에 놀라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후에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은 맹활약을 시작한다.

잠수함의 역할은 적 전함 공격, 정찰, 잠입 등 다양하지만 20세기 두 번의 세계 대전의 결과를 바꿀 뻔했던 기능은 전략적 기능이었다. 양자 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군의 물자지원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 군수물자뿐 아니라 생필품, 식량까지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다.

대서양을 가득 채운 이 대규모 수송선단을 독일의 유크트가 공격했다. 보통 유크트의 활약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때를 생각하지만 1차 대전 때부터 유크트의 활약은 공포스러웠다.

(2595호에 계속)  
뉴스1

독자기고

혁신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선물해 드리는 것



정기석  
국립영천호국원 관리과 주무관

여기에 국립영천호국원은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틀에 발맞춰 국민의 삶에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차근차근 이를 실행해 나갔다.

1년여가 지난 현시점에 그동안 실행한 모든 혁신 성과를 집대성해 발표하는 자리인 '혁신 페스타-쉽 그리고 다시 시작'을 개최했다.

혁신행정 사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자동화 참배시스템 도입 및 참배 대기 현황 실시간 유튜브·문자 안내라 할 수 있다.

참배 신청을 키오스크 및 서버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이후로 개인이 더 빠르고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대기 현황도 편안한 가족들끼리의 공간에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과학적 행정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천호국원만의 혁신 우수사례로 불릴 만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혁신사례는 전국 국립묘지 가

운데 최초로 도입된 '참배 드림서비스' 운영으로 직접 참배가 어려운 유가족분께 영천호국원 의전단이 품격있는 참배 대행 실시 후 그 영상을 유족에게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더욱이 기존 합동 안장식을 개별 유족 맞춤형 예우를 다해 가족 단위 안장식을 치러드리는 방식으로 변경한 '3S(세별안장식)'은 행정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 봉안당 최첨단 LED 대형 화면 디지털 미디어월 설치, 고품격 자연장지 '충혼의 언덕'을 조성하는 등 더욱 세련되고 현대화된 추모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영천호국원이 최근 보여온 이런 혁신 행보들은 모두 그 방향성이 분명하다. 일하는 방식에서의 '혁신'이란 바로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담긴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함'과 '가치있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설

온 마을이 함께...

아이 키우는 돌봄시설 확대되길

경북도가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대책으로 1년 365일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K보듬 6000' 1호점을 오픈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택, 교육 등의 문제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맞벌이가 일반화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보육 부담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초 'K보듬 6000'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8일 오후 경산시에서 1호점 문을 열었다. K보듬 6000에서 6000은 '육아천국'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양우미린에코포레아파트에 마련된 K보듬6000 1호점은 이 아파트 1층을 매입, 영유아 돌봄 시설인 시립하양에코어린이집, 초등 돌봄 시설인 에코포레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독서와 휴식을 위한 에듀센터,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체육관, 어린이 안전 놀이터가 함께 들어섰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교사 등 상근직원뿐 아니라 주민 등 자원봉사자들이 가세해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전문가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돌아준다. 또 부모, 조부모, 경로당 어르신들이 육아 도움을 주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센터 주변 안전 순찰, 자원봉사자는 재능 나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북도와 경산시는 5년 이상 돌봄 경력자 등 최우수 교사를 채용하고 원어민 교사를 상시 배치해 체육, 과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친환경 과일 간식과 초등학생 대상 방학 중 점심도 제공한다. 맞벌이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채 생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사회 공동체 회복으로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부담을 공동체가 덜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온종일 시간 구애 없이 무료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K보듬 6000은 경북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 극복 완전 돌봄 모델로 대한민국 대표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잘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올 연말까지 포항 구미 경산 김천 안동 예천 성주 등 7개 시·군에 53곳을 개소하고 내년에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보듬 6000'은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K는 경북에서 만든 돌봄 모델을 대한민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의미고 보듬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 보호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뜻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1월 현재 2만3000여명에 그쳐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전 사상 최저치는 2023년 1월 (2만4665명)로 전년 동월 대비 86개월째 감소세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저출산지표는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 같은해 혼인 건수 역시 19만1000여건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해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온 마을이 함께 아이 키우는 돌봄시설인 'K보듬 6000' 1호점 개소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 몫이 되길 기대한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청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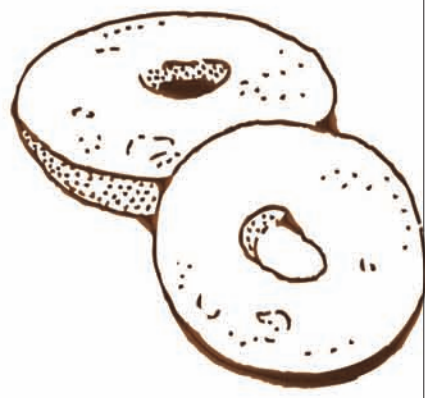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 시월愛 마지막 밤 커피&빵 FESTA

월정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과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빵과 디저트  
그리고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추억이 될  
잊혀진 계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월정교 잔디공원

10월 26일(토) 13:00~20:00

10월 27일(일) 11:00~18:00

주최 경상투데이 주관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

후원  한국수자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